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 30.(화) 06:00,
(지면) 2024. 1. 30.(화) 석간

배포 2024. 1. 29.(월) 14:00

양봉혁 주무관, 2023년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정

-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증진 위해 격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3년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으로 부산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소속 양봉혁 주무관을 선정하고, 1월 29일(월) 강도형 장관이 직접 기념패와 부상을 수여하였다.

우리 바다에는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 시설이 총 3,313기(2023. 12. 31. 기준, 유인등대 제외)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항로, 외딴섬, 방파제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어 항로표지 점검정비 공무원들이 소형선(전마선)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교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위험한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항로표지 점검정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로 인정을 위해 처음으로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을 선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발을 위해 2023년 12월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업무 기여도, 정책 참여도 등을 1차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5명의 최종후보를 대상으로 전문성, 공직자세 등을 심사하여 제주단 양봉혁 주무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양봉혁 주무관은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선박의 항해 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격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870)
		담당자	사무관	김영진 (044-200-5871)

참고

양봉혁 주무관 프로필



- (출생년도) 1979년
- (출 생 지) 제주
- (최종학력) 제주대학교(전기공학 전공)
- (경 력) 13년 3개월
 - ('10. 9 ~ 현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 (주요경력) 항로표지 점검, 산지·마라도등대 근무